

中企 절반 “제조 공정 AI 도입 긍정적”

AI 필요성, 공장 고도화될수록 높아
비용 부담·전문인력 부족 해결 과제
정부 지원 땀 절반 이상 “적극 참여”

최근 5년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인공지능(AI)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최근 5년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AI도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체의 47.4%가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 도입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을 포함하면 78.5%가 AI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공장의 수준이 기초(38.8%)에서 고도화(68.4%)로 높을수록 AI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함께 높아졌다.

AI 도입이 가장 필요한 분야로는 ▲품질관리(33.9%) ▲생산 최적화(32.3%) ▲공정 자동화(31.9%) 순으로 조사됐다.



축산물값 ‘들썩’ 올해 하반기 축산물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들이 고기를 진열하고 있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소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은 국산과 수입산 모두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I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초기 비용 부담’(44.2%)과 ‘전문 인력 부족’(20.5%)이 꼽혔다. 실제로 AI 도입을 위한 투자 의향 금액은 ‘1억원 이하’가 68.9%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54.6%)은 정부가 AI 기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AI팩토리)을 신설할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스마트공장 수준이 높을수록(기초 47.4% → 고도화 63.2%) 참여 의향이 커 디지털 전환이 진전된 기업일수록 AI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AI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72.3%)이 가장 절실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AI 전문 컨설팅’(21.9%)이 뒤를 이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된 스마트공장에 대해 77.1%의 기업이 ‘잘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스마트공장 도입 후 가장 만족스러운 변화로는 ▲생산성 향상(42.0%) ▲작업환경 개선 및 산업안전 향상(36.1%) ▲공급망·재고 관리 효율화(25.5%) ▲품질 향상(25.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전문 운영인력 부족’(43.8%)과 ‘높은 유지관리 비용’(25.9%)이 꼽혔다.

또한 응답기업의 64.5%는 제조 공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68.3%는 이를 분석·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스마트공장 수준이 높고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데이터 활용률이 높았다. 데이터 활용의 걸림돌로는 ‘전문인력 부족’(50.4%)과 ‘노후 설비로 인한 시스템 과리’(28.5%)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양찬희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AI 대전환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기초 수준의 디지털 전환 기업을 위한 투트랙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데이경제



농협전남본부, 화순 꽃축제서 한돈 홍보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19일 “지난 17일 화순군 대표 축제인 고인돌 가을꽃축제 현장에 서 ‘한돈 시식행사 및 판촉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농협전남지역본부와 화순축협이 주관해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우리 한돈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알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이번 할인행사는 삼겹살과 목살 등 정상이 대비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정삼차 화순축협 조합장은 “신선하고 품질 좋은 우리 한돈을 맛보며 즐거운 축제도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일 전남지역본부장은 “농심천심의 정신을 담아 키운 우리 한돈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양돈 농가가 고품질의 양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스마트인재개발원 “언어지능기반 개발자과정 만족도 높다”

분석서비스 3회차 최종 99.2점 기록

스마트인재개발원은 19일 “지난 9월 목표 AI 메타버스센터에서 수료한 ‘언어지능기반 분석 서비스 개발자과정 3회차’가 최종만족도 99.2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훈련서비스품질 전 항목에서 만점(5점)을 받아 높은 교육 품질을 입증했으며 목표시와 협력 운영되는 지역 특화 교육 모델로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성과는 ▲수료 전 진로상담 ▲열정적인 강사진의 실무 중심 강의 ▲센터 전 직원 참여 맞춤형 취업 지원 등 세 가지 요인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수료 한달전부터 진행된 학습자 개별 진로상담과 맞춤형 지원은 90% 이상 참여율을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학습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기관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했다.

강사진의 열정적인 지도와 실무 중심 커리큘

럼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습자들은 “파이썬이 이해하기 쉬워졌다, SQLD 자격증까지 합격했다”고 만족도를 평가했다.

목표 AI메타버스센터는 수료 한 달 전부터 센터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밀착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력서·자기소개서 첨삭, 실전형 모의면접, 개인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강인훈 목표 AI메타버스센터장은 “이번 과정

성과는 학습자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우리 센터 전 직원의 헌신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목표시와 함께 지역 청년들이 4차산업사회를 선도하는 실무형 AI·메타버스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인재개발원 목표 AI메타버스센터는 AI, 데이터 분석, 메타버스 등 첨단 ICT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며 목표시와 협력해 지역 산업 맞춤형 실무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로또복권

〈제1194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31315243337/보너스2		
1등	985,155,349	6개숫자일치
2등	46,438,300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3등	844,799	5개숫자일치
4등	50,000	4개숫자일치
5등	5,000	3개숫자일치

젠슨 황 등 글로벌 리더 1천700명 경주 총집결

APEC CEO 서밋 28일 개최

오는 28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CEO 서밋’에 엔비디아, 아마존웹서비스(AWS), 씨티그룹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총집결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아시아·태평

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포럼인 ‘2025 APEC CEO 서밋’을 오는 28~31일 경주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밋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며, 의장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맡았다. 최 회장은 28일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개·폐회사, 의장 인수인계식까지 행사 전반을 총괄 지휘할 예정이다.

서밋에는 APEC 21개 회원국 가운데 정상급 인사 16명과 글로벌 기업 CEO 1천700여명이 참석한다.

‘브릿지, 비즈니스, 비욘드’(Bridge, Business, Beyond)를 주제로 ▲지역경제통합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 ▲금융·투자 ▲바이오·헬스 등 시대적 과제를 논의한다.

AI 거물인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CEO를 포함해 맏 거인 AWS CEO 등 글로벌 테크 리더들이 연사로 나선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